

○최근 진안군이 마이산 탑사의 대웅전 산신각 천지탑의 철거를 지시하는 공문을 보내와 충격을 주고 있다(왼 안은 진안군이 철거를 지시하는 부분).

# 마이산 탑사 '폐사 위기'

## 진안군, 대웅전·천지탑 등 철거 요구 공문 "관람료 30% 징수위한 郡횡포 부당" 여론

불가사의 돌탑으로 알려진 마이산 탑사(주지 왕선)의 천지탑이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철거될 위기에 처해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진안군(군수 임수진)은 군 소유토지에 건립된 탑사의 대웅전과 산신각, 천지탑을 철거하라는 공문을 보내와 탑사와 지역불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진안군의 이러한 처사는 마이산 탑사 돌탑중 가장 큰규모인 천지탑이 88년부터 도지정 문화재로 공식지정됐음에도 철

거를 요구하는 문화체육부와 문화재단의 극치. 이와 아울러 문화재 사찰인 마이산 탑사의 전 건물인 대웅전과 산신각철거 요구는 곧 사찰을 폐쇄하라는 처사여서 지역주민 및 불자들이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사찰관람료문제. 88년 마이산 탑사가 관람료 사찰로 지정되면서 진안군은 군 소유부지 2백97평이 사찰경내에 있다는 이유로 사찰관람료의 30%를 강제징수해 왔다. 이에 대해 탑사는 군의 사찰관

람료 30% 강제징수는 부당하며 97년 20% 98년 10%로 줄이는 대신 매년 군 소유 땅 대략 2천만원을 군 재정으로 납부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군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군소유토지에 일부가 침범돼 있다는 이유로 대웅전 산신각의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나한전 중각 요소채 신축 등 중창불사에 필요한 관람료 예치금 사용승인을 지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탑사주지 왕선스님

은 "군에서 대웅전 산신각과 문화재인 천지탑의 철거를 요구하는 몰상식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소하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체육부와 문화재단 리국은 "탑사의 존재와 중창불사가 탑사존에 관련된 만큼 문화재보호법 제 20조4항에 의거하여 임박취지에 맞는 환경정화사업에 해당된다"며 "문화재 주변 시설변경 및 중·개축은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하여 환경정화사업을 해야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어 문화재보호를 위해 사찰건물을 철거하라는 군의 횡포는 부당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김원우 기자

### · 방송화제 ·

#### BBS '시사매거진'

불교방송의 유일한 사회시사프로그램인 '시사매거진(PD 문태준)'이 각종 사회현안을 쉽고 정확하게 풀이해 불자들에게 유익한 시사프로그램으로 각광 받고 있다. 지난 가을 개편이후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저녁 7시25분~8시에 방송되는 시사매거진은 그동안 안쓰레기소각장 문제, 의과대 신설문제, 인권문제, 현행중서 활용문제 등을 다뤘었다. 특히 월요일에는 취재특집코너를 마련, 현장취재리포트 노유진씨를 투입해 문제와 관련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자들에게 제시해 주고

#### 사회현상 쉽고 정확하게 전달

있고, 또 토요일에는 토요일 특집 시간을 마련, 한주간의 정점문제들을 심도있게 다루고 있다. 지난 25일 월요일취재특집 시간에는 수확능력시험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수능이후 청소년들의 여가활용에 대해 학부모, 학생, 교육부 등의 의견을 담아냈다. "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각종 문제를 불자들이 바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프로그램의 목적"이라는 문PD는 "앞으로 단편성 시사문제보다는 일반보도에서 외면되고 있는 사회문제에 눈을 돌려 보다 심층적인 취재로 더욱 정확하게 짚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 MBC다큐 '인류, 인류의 유산' 방영

12월 5·6일 佛·伊 등 6개국 실험제작

MBC TV는 오는 12월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경부고속전철의 경주노선결정과 97년 문화유산의 해를 앞두고 오는 12월 5, 6일 밤 11시에 세계각국의 실험을 집결한 창사특집 2부작 다큐멘터리 '인류, 인류의 유산' (윤혁 연출)을 방영한다. 지난 7월 28일부터 8월말까지 프랑스, 이탈리아, 이집트, 캄보디아, 일본, 한국 등 6개국의 현장을 돌며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몸살을 앓고 있는 해외문화유산 현장을 취재, 개발과 보존이 현대인에게 갖는 의미를 살펴 보고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혜롭게 전승해갈 수 있는 해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취지. 제1부 '사라져가는 인류의 흔적들' 편에서는 종말의 위기를 겪고있는 문화유산의 현상들과 그 속에서 실제생활에 심각한 제한을 받고있는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취재, 개발과 보존문제에 접근한다. 또한 불편한 관광도시가 아닌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삶의 도시로 바꾸어 나가기라는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도 소개한다. 제2부 '인류의 선택' 편에서는 문화유산과 현대인의 삶을 조화롭게 추구해가는 문화선진국들의 선택을 살펴봄으로써 그 해답을 찾는다. 특히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과 함께 세계 7대 불가사의 '앙코르와트' 유적의 복원을 통해서 20년 전정의 상처를 이겨내고 정체성을 되찾고자 하는 캄보디아를 집중 소개한다.



최정사 최정사(대구시 달성군 가창면, 주지 금봉)는 17일 서암스님이 법사로 자라한 가운데 5천동 회향법회와 함께 8각7층으로 된 국내 최초 청동사리탑 제막식을 봉행했다. 이 동탑은 전체길이(전고) 9m30cm, 직경 3m40cm, 두께 1.7cm

#### 국내 첫 청동사리탑

대구 최정사 17일 제막

로 해성불교미술원(원장 김용섭)이 3년 6개월의 조성기간을 거쳐 만든 것으로 월경사 8각9층탑을 모델로 했다. 그러나 월경사탑과 달리 7층탑이며 탑신부 및 기단부에 금입으로 53불과 8면보살, 8만금강역사상을 양각하여 시각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조성했다. 총무계 6톤에 구리와 주석을 92:8의 비율로 섞어 보존성을 높인 이 사리탑에는 불사리 3과가 탑신부에 봉안됐다. <윤>

#### 종단소식

총화중 내년예산 36억원

총화중(총무원장 남경)은 지난 15일 제37차 중앙총회를 개최하고 97년예산 35억 8백95만원을 확정했다. 총회에서는 △총무원사 이전 △가사 품수별 차등포시 △원로의원 겸직 금지 △부산 경남총무원 분할 운영 등을 결의했다.

단종대왕 영가천도제

창신동 원각사, 12월3일

창신동 원각사(주지 범해)는 오는 12월3일 극락보전에서 단종대왕 승하 539주년 추모 영가천도 및 1만관등법회를 봉행한다. 단종대왕 영가천도제는 원각사가 단종비 홍씨의 기도도량인 만큼 올해부터 단종승하일에 개최된다.

#### 불자연극인 김성녀씨 '강단 서다'

### 성균관대서 '연극의 이해' 강의 수강신청자 몰려 분반수업

불자 연극인 김성녀씨(사진)가 재미있는 연극강의로 캠퍼스 스타교수로 떠올랐다. 지난 2학기부터 성균관대에서 '연극의 이해'라는 과목을 맡아 교단에 선 김성녀씨는 타고난 배우근성과 유창한 말솜씨로 이 과목을 교내 최고의 인기강좌로 만들어 또한번 다재다능함을 과시하고 있다.

김씨는 연극, 뮤지컬, 창극, 드라마배우는 물론이고 MC 등 다양한 장르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끼를 강단에서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는 것. 김씨는 이미 올초부터 성균관대 사회교육원의 연기와 주임교수도 맡아왔다. '연극의 이해'는 수강신청일에 몰려드는 학생들로 정원을 넘겼고 분반까지 해 수업을 하고 있는 상태다. 현역 연극인의 이론수업이라는 점이 일단 이목을 끌고 다채로운 강의내용이 인기비결. 마당놀이, 꼭두각시 공연 등 현장의 배우들을 직접 초청하고, 학생들에게 즉석에서 연기를 시키고 평을 해주는 등 자유롭고 편한 분위기가 신세대 학생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



책 속의 내용을 말할 때 보다 경험을 이야기할 때 학생들이 반응이 좋습니다.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무대위에 서 있을 때처럼 학생들을 흡입할 수 있는 강의가 되도록 하겠다"고 김성녀씨는 의욕을 폈다.



#### 진각종 도선동 '밀각심인당' 완공

진각종도 회당대중사가 수도서를 교화의 첫발을 내디뎠던 도선동 밀각심인당 개축불사가 지난 21일 사무대중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됐다. 연면적 1,762평에 건평 857평인 밀각심인당은 지하 2층 지상 3층의 사무동과 208평 강당과 심인당을 갖추고 있으

며 지상 2층의 집회동을 갖춰 지역교화활동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날 개축불사에서 락혜룡리원장은 "종조님의 열이 서려있는 이곳은 종도들에게 주는 의미가 깊다"며 "진기50년이 되는 시점에서 서울지역 포교의 중심도량으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이 크면 그림자도 크다. 큰산에 짙어 있고 그 짙에 큰스님이 있어 속진의 증생들은 숲일 같이 푸른 법문을 들을 수 있다. 고즈넉한 산사에서 세속의 번잡을 끊어보며 단비같은 지혜의 말씀이 내리시는 큰스님들을 우리는 존경해 마지 않는다. 찰찰마다 사찰을 순례하고 큰스님을 친견해 감로법문을 듣는 우리의 신행풍습은 무엇보다 아름다운 것이다. 최근 이런 저런 비리뉴스와 부정부패 소식으로 족발이라

도 해 버릴것 같은 서울에 큰스님이 오셨었다. 그냥 불일이 있어 오신 것이 아니라 스님들과 재가신자를 위해 법석을 마련해 놓고 오셨다. 법회는 '참사람결사대

#### 큰스님의 법석

법회'였고 사울 일정이었다. 참 사람이 없는 세상에 참사람의 씨를 뿌리고자 마련된 이 법회는 백양사 교불총림이 주관했고 상당법어는 총림의 방장인 서용스님이 사흘간 계속했다. 그러나 모처럼 큰스님의 법어를 들을 수 있는 이법회에 스님들의 관심은 거의 '0점'에 가까웠다. 사흘간 동참한 스님은 50명을 넘지 못했고 재가신도는 1천여명을 웃돌았다. 결재제도 아니고 흥보가 전혀 안된 것도 아닌점

방장스님의 표정은 밝지않아 보였다. "결재 때마다 찾아드는 수좌들을 다 맞이 못해 안타까와 하다가 서울에서 크게 모여 법을 나누고자 해서 마련된 법회인데 수좌님들이 많이 오지 않았다"는 첫머리가 스님의 심기를 보여 주었고 법회를 준비한 실무자들은 죄송스러움을 감당기 어려웠다. 백양사 주지 지선스님은 "어른들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지 않는 풍토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런 행사야말로 깨달음의 사회화를 실천하는 것이므로 종단적인 관심사여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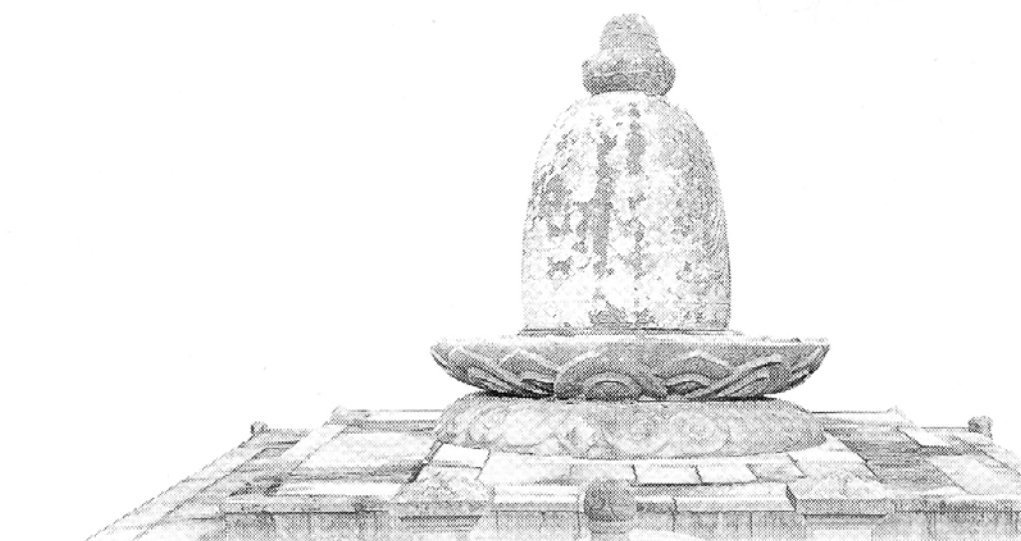
격조높은 작품 · 감동적인 영상 - 불교TV영상물

## 불교TV 영상물은 한잔의 맑은 차처럼 山寺의 향음이 그윽합니다.

### 불교TV 특집 다큐멘터리시리즈 제2집 5선 출시

- 1 출가 새로운 탄생**  
수계산림과 행자교육의 대표적 가람, 불보존(佛寶宗) 동도사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수행자들의 치열한 구도정신을 담은 작품. 한국불교인이 간직한 독특한 수행체제와 과정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영상이 펼쳐진다.
- 2 영상포럼 내원사**  
한국의 대표적인 비구니선원으로 널리 알려진 내원사의 아름다운 영상미. 절제된 카메라앵글에 포착된 내원사의 하루는 자연속에 동화되어 생활이 곧 신이 되어버린 신사의 모습 그대로이다.
- 3 산중편지**  
속세의 발길이 닿지 않는 산사의 비경과 불도(佛道)를 구하는 이방의 수행자들이 보내는 산중편지. 자신의 방식으로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는 내본스님의 신선세계가 눈앞인 산사의 비경과 함께 음악처럼 펼쳐진다.
- 4 적멸보궁을 찾아**  
적멸보궁(寂滅寶宮)은 교조(敎祖)석가모니부처님의 전신사리(眞身舍利)를 봉안한 사찰 당우(堂宇)이다. 이 프로그램에는 불자들의 순례지이자, 기도처로서 가장 신봉되고 있는 성지인 5대 적멸보궁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
- 5 산사의 향음 · 만등만광양법회**  
속세의 탐·진·치에서 벗어나 고요한 자태를 간직하고 있는 산사에는 언제나 향기로운 아름다움이 있다. 그곳은 또한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을 정화하는 정령계와 같은 곳이다. 불기2539년 부처님오신날 불국토를 만드신 화공양법회는 육법공양식의 증계방송을 녹화한 것이다.

VHS · 5개 1SET / 소비자가:110,000원 (VAT포함)



btv  
불교 TV 영상포교사업단  
TEL: (02)3272-0781-5/706-3502-5

· 영축산 동도사 금강계단 석등부도